

기괴한 ~ 에이 고딕 서사시

GE 그레이븐 지음

제 1 권

'부활'



제 1 장



에덴동산만이 그와 견줄 만했다. 고요한 안개에 휩싸인 평화로운 산림은 마치...

완벽하고 순수한 낙원, 심지어는 오염되지 않은 창조물 처럼 보였다. 시끄러운 새들이 뻑뻑한 초록빛 잎사귀 위에서 날갯짓하고, 아침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어 안개 속에 비스듬히 뻗은 색색의 빛줄기를 드리웠다. 안개는 때때로 길을 헤매는 동물이 뿌리와 애벌레를 살펴보는 동안 갈라졌다가 다시 그 동물을 삼켜버리고 원래대로, 끊어지지 않은 투명한 벽으로 되돌아갔다. 나뭇잎 하나가 햇살 속에서 나른하게 나선형으로 움직이며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또 다른 나뭇잎이...

첫 번째 잎사귀를 따라 잎사귀가 떨어졌고, 또 다른 잎사귀가 나타났다. 새들은 침묵했고, 햇빛은 희미해졌다.

그렇게 시작되었다.

안개가 휘몰아치며 도망치는 야생 동물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나뭇잎, 나뭇가지, 깃털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나무 사이로 밝은 새 떼가 하늘로 솟구쳐 오르며 나무들이 흔들렸다. 산은 천둥처럼 울리고 나무들은 휘청거렸으며 땅은 징처럼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그 불길한 울림이 절정에 달했을 때, 끔찍한 날개 달린 존재들이 산봉우리를 넘어 쏟아져 내려왔다. 어떤 이들은 키클롭스처럼 나무만큼이나 거대했고, 또 어떤 이들은 키메라처럼 어린 아이만 한 키였다. 모두 전투복을 입고 있었고, 얇은 막으로 된 날개는 격렬하게 휘몰아치며, 발톱으로는 검과 방패를 움켜쥐고 있었다. 수천 마리에 달하는 천사, 거인, 그리고 그로테스크 무리, 즉 그리고리, 네필림, 엘조, 고르곤, 티탄, 그리고 키클롭스가 마치 파괴의 눈사태 처럼 산비탈을 따라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 왔다. 맹렬한 불길의 최전선에서, 온통 검은 눈을 가진 천사 무리가 내려오는 무리를 이끌고 그늘진 계곡으로 향하며, 비탈면을 따라 넓은 길을 내며 숲을 평평하게 놓았다. 그 불경스러운 군대의 공격 이후에는 살아남은 생명체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자 그 혼란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황폐해진 풍경에는 새로운 침묵이 감돌았고, 그 침묵은 그 이후의 파괴만큼이나 완벽했다. 마침내 징이 울려 퍼지고 두 번째 무리가 지나가면서 땅이 신음하기 시작했다. 산 너머로 또 다른 천사 군단이 다가왔는데, 첫 번째 무리와 거의 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종으로 분류될 만큼 충분히 달랐다. 이들은 악마라기보다는 거대한 남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똑같이 검었지만, 분노보다는 결연한 의지가 더 엿보였다.

수많은 천사들이 산 정상에 멈춰 서서 아래의 참상을 둘러보았다. 선두에 선 천사 미카엘은 몸을 돌려 수천 명의 합창단이 부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에는 속임수가 얽혀 있다! 그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는 아래쪽의 버려진 듯한 비탈면을 향해 돌아서며 고함을 질렀다. “셈자자, 너는 평화를 누리질 못할 것이다! 네 주문을 풀어라!”
 케르베로스! 아라키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모습을 드러내라! 보좌의 명령이다!” 천사가 포효했다.

두 개의 천사 군단이 더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 수는 거의 모든 것을 뒤덮을 정도였다.

미카엘의 진형 사이로 해가 떠오르기 직전이었다. 이들은 가브리엘과 라파엘의 군대였다. 미카엘이 그들에게 말했다. “셈야자와 그의 군대가 아래에 있다.”

케르베로스 역시 우리를 배신했다. 그는 자신의 세력을 ~의 세력과 결탁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쓰러진 나무가 천사 아라키엘로 변하여, 미카엘을 향해 돌진하는 순간 본모습을 드러냈다.

“마이클!” 라파엘이 경고했다.

미카엘은 몸을 돌려 한순간에 검을 하늘로 찔렀다. 아라키엘은 그 검을 향해 달려들어 휘두르며 비명을 질렀고, 그의 검이 그녀의 몸을 꿰뚫었다. 그녀는 땅에 쓰러지며 분노에 찬 먼지 조각들로 변해 사라졌다.

“셈자자!” 미카엘이 소리쳤다. “네 속임수가 너를 심판에서 제외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숲 속 공터로 발을 내딛었다. "또 다른 문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미카엘이 외치며 검은 땅에 꽃았다. 미카엘이 찬란한 검은 뿔아 들자 산이 다시 한번 흔들렸고, 상처 입은 땅에서 피가 솟구쳐 올랐다.

비명이 공기를 갈랐고, 바위처럼 보였던 것이 갑자기 가슴에 깊은 상처를 움켜쥔 채 비틀거리는 셈야자의 모습으로 변했다. "케르베로스!" 그가 외쳤다. "검을 부러뜨려라! 상처를 아물게 해라!" 셈야자가 쓰러지자 그의 마법이 풀리고 주변 풍경이 변했다. 쓰러진 나무와 바위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던 자리에는 이제 수천 마리의 악마 군단이 황폐해진 산비탈에 웅크리고 서 있었다.

순식간에 그중 하나가 산비탈을 따라 위로 솟아올랐다. 그것은 개처럼 생긴 머리가 세 개 달리고, 이를 갈며, 뱀처럼 채찍 같은 꼬리를 가진 끔찍한 천사, 케르베로스였다. 폭풍우처럼 강한 바람이 불어닥치고, 구름이 소용돌이치며 하늘을 순식간에 어둡게 만들었다.

“에제키엘!” 셈야자가 외쳤다. “구름아! 검은 부숴라!” 그러자 셈야자는 잠시 굴러가더니 숨을 거두고 먼지 구름으로 변했다. 셈야자의 군대가 공격해 왔다. 케르베로스를 따라 산비탈을 올라 미카엘을 향해 나아갔다. 산꼭대기에 있던 세 군단은 침착하게 뒤로 물러나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소용돌이치는 구름에서 검은 회오리가 내려와 땅을 향해 떨어졌다. 땅이 솟구치더니 미카엘의 검은 상처에서 바위 하나가 솟아올랐다. 회오리는 거친 돌을 감싸고 검게 그을리게 만들며 격렬한 움직임으로 돌의 모양을 다듬고 새겼다. 혼돈 속에서 매끄러운 직사각형이 나타났는데, 그 다섯 면에는 수백 줄의 복잡한 원형과 직선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솟아오른 거대한 석상은 케르베로스의 진격을 완전히 막아섰다. 공격하던 군단은 일제히 방향을 바꿔 산 아래로 후퇴했고, 검은 눈에는 살기 대신 공포가 가득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문은 완성되었다. 도망치던 천사들은 공기가 끈적끈적해진 듯 속도가 느려지더니, 필사적으로 탈출하려 애쓰는 와중에도 멈춰 섰다. 회오리바람이 그들을 빨아들여 석상의 심장부로 끌어당겼고, 마침내 한 명씩 석상에 삼켜졌다. 마지막 천사가 사라지자 석상의 심장부는 불타 없어지며 가운데에 커다란 구멍이 드러났다. 소용돌이는 하늘로 치솟았고, 구름은 회전 속도를 늦췄다. 고요 속에서 천사들은 새로 만들어진 문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매끄러운 검은색 모놀리스는 높이 10피트, 너비 5피트, 두께 2피트였으며, 보이는 모든 부분에는 천사와 신 자신의 언어로 된 구절들이 새겨져 있었다. 모놀리스의 유리처럼 매끄러운 검은 표면은 최고급 거울처럼 완벽했고, 중앙의 구멍은 모양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으며, 지름이 1피트(약 30cm)에 달해 돌의 폭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돌로 만든 인장은 완벽했다.

무릎 꿇고 있던 천사들이 일어섰다. 미카엘은 가브리엘에게로 돌아섰다. "남은 파수꾼들은 우르의 산자락에 숨어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검을 쓰다듬으며 산비탈을 올라갔다.

"가브리엘!" 마이클이 그의 뒤를 따라 불렀다.

미카엘이 "그들은 왕좌의 명령에 따라 스스로의 칼로 죽임을 당해야 한다." 라고 덧붙이자, 가브리엘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뒤를 돌아보았다. 가브리엘은 긍정의 표시로 손을 흔들고 커다란 바위 위로 뛰어 올라 자신의 군단 위로 "우르 계곡으로! 마지막 그리고리에게!"라고 외쳤다. 가브리엘은 군단을 이끌고 서쪽 지평선을 향해 돌진했다.

"아자젤은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미카엘?" 라파엘이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모아 물었다.

"그는 하라단 사막 산맥으로 날아갔습니다." 마이클이 대답했다. "그는 맹세했습니다."

루시파엘과의 동맹. 아자젤은 더 많은 병력으로 보호받는 대가로 그녀의 왕좌 주장을 지지한다." 미카엘은 쇠 소리를 내는 모놀리스를 살펴보았다. 두 사람은 돌로 된 봉인을 빙빙 돌며 미카엘의 말을 이었다. "그리고 바타렐의 수많은 군대가 곧 그녀의 군대를 채울 것이다." 미카엘은 말을 멈추고 라파엘을 쳐다보았다. 라파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눈썹을 치켜올렸다.

그는 얼굴을 마주 보며 말했다. "만약 그들이 연합한다면, 루시파엘은 필요한 병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네필림 또한 그녀의 전력을 강화할 것이고, 그녀는 무엇 보다도 왕좌를 갈망한다."

라파엘은 몸을 돌려 검과 날개로 이루어진 거대한 천상의 대열 위로 포효했다. "바타렐의 군단과 남은 네필림 무리를 향해 진격한다!" 천사들의 절반이 동쪽 하늘로 솟구쳐 올라 라파엘의 뒤를 따라 공중 대열을 형성했다.

미카엘은 남은 자들에게 명령했다. "루시파엘의 새로운 군단에 대한 공격을 위해 집결하라! 그녀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왕좌가 우리의 길을 밝혀준다! 이전처럼, 우리는 먼저 거인과 지상의 악마들을 처치할 것이다. 하나로 움직여라. 지체하지 마라!" 하얀 날개와 번쩍이는 갑옷으로 이루어진 구름이 미카엘 뒤편 하늘로 솟아오르며 봉인을 버렸다.

그렇게 그 인장은 거의 600세기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세월의 흐름과 비바람에 묻혀 먼지가 쌓이고 흙과 바위층이 그을렸다. 아시아 대륙 깊숙이 박힌 인장은 마치 짝짓기하는 중국 하루살이처럼 수십 년의 세월을 흘려보내며 잠들어 있었다.

지상의 일을 돌보던 천사들, 즉 파수꾼들과 그리고리들이 타락하면서 오직 인간만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여러 세대에 걸쳐 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인간은 정원을 가꾸다가 우연히 땅속에 묻힌 문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을 알게 된 인간은 그것이 신성한 기원임을 깨달은 그는 수 세기를 지워버리고 그것을 모셔 두었으며, 그 위에 신전을 세웠다. 그리고 반 천 년 동안 그는 그 유물을 비밀로 간직하고 숭배했으며, 그분은 자신의 삶을 그 일에 바치셨습니다. 마침내 그분은 그 봉인을 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학식이 쌓였지만, 여전히 그것을 시도할 만큼 어려서였습니다.

~*~

중국 중부 ~ 1331년 6월

수백 마리의 비둘기가 화려한 중국 사원의 거대한 지붕에 줄지어 앉아, 등성등성한 지붕 턱을 차지하려고 서로 꼬꼬댁거리고 쪼아댔다.

그리고 다시, 한 마리의 새가 뻑뻑하게 모여든 능선에서 날아올라 크게 원을 그리며 다시 합류했습니다.

수많은 비둘기 떼가 그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턱 아래 돌 표면에는 수십 년 동안 쌓인 비둘기 배설물이 회색과 흰색 얼룩을 남기고 있었다. 비둘기 떼가 있던 자리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받침대 위에 돌 조각상들이 솟아 있었다. 각각의 조각상은 1.2 미터 높이에 박쥐처럼 얇은 날개를 가진 기괴한 석조 괴물을 묘사하고 있었다.

이 돌로 만든 짐승들 중에는 용과 같은 모습도 있었고, 사람과 짐승이 반반씩 섞인 모습도 있었으며, 또 어떤 것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원시적인 모습이었다. 날개를 펼친 채 웅크리고 있는 모습도 있었고, 날개를 접고 있는 모습도 있었으며, 이 두 가지가 혼합된 다양한 모습도 존재했다. 조각상의 세부적인 묘사와 불규칙한 자세는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살아있는 듯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들이 돌에 얼어붙은 것 같았다. 그것들은 사방으로 뻗어 나와 사원 꼭대기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사원 자체는 매우 오래된 것으로 보이며, 천 년 전에 다듬어진 불규칙한 돌판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건물 외벽에는 날아다니는 악마를 묘사한 풍화된 조각들이 가득했는데, 그중 가장 흔한 것은 날개를 펼친 용이 세 개의 원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형상이었다. 사원 정면에는 세 개의 아치형 입구가 나란히 있었는데, 가운데 아치가 양쪽 아치보다 더 높았다.

날개 달린 사자 형상의 8피트 크기 석조 조각상 세 개가 각 아치의 왼쪽 가장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세 개의 아치 위에는 각각 뚜렷한 중국어 명문이 새겨져 있었다. 이 명문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 모두 합쳐 '비룡사' 라는 뜻이 되었다.

잘 가꾸진 정원이 사원을 둘러싸고 있었고, 볼록한 티크 나무 다리들이 좌우로 휘어져 있었다. 구불구불 흐르는 시냇물을 건너면, 안쪽 정원의 분재와 바위들 너머로 과일과 견과류 나무 과수원, 그리고 작은 활엽수 숲이 펼쳐지고, 그 너머로는 더욱 야생적인 산림이 나타납니다. 잘 가꾸진 정원 과 길들여지지 않은 숲의 가장자리에는 중국 개똥지빠귀 한 마리가 오래된 토종 은행나무에 앉아 고요한 선율을 울려 퍼뜨리고 있었고, 한낮의 햇살이 오솔길과 연못에 얼룩덜룩하게 비쳤습니다.

검은 승복을 입은 승려들이 숲에서 줄지어 나와 돌길을 따라 엄숙하게 내려갔다.

건물로 이어지는 통로를 따라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안개처럼 길을 따라 흘러갔다. 마치 죽은 듯 침묵 속에 절 안으로 들어갔다. 절 안에는 모든 수평면에 수많은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구멍 뚫린 향통에서는 달콤한 향 연기가 피어올랐다. 촛불과 향이 어우러져 절 안은 짙은 영적인 분위기로 가득 찼다. 비단복을 입은 승려들은 차례로 세 개의 방을 지나갔는데, 각 방은 이전 방보다 더 컸다. 마지막 방은...

그곳은 광활했고, 오목한 천장은 사제들의 머리 위까지 높이 솟아 있었다. 날아다니는 짐승들을 묘사한 판화들이 있었다. 천장의 돔을 둘러싸고 있었다. 수많은 교차하는 선과 글자들이 곡면을 장식하고 있었는데, 마치 하늘의 상세한 천체 지도처럼 보였다.

방 중앙의 윤이 나는 바닥에는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는 둥근 구멍이 뚫려 있었다. 구덩이는 거대해서 깊이가 거의 4미터에 달했다. 신전 바닥처럼 구멍의 원통형 벽도 매끄럽고 윤이 났으며, 구멍의 중앙, 신전 바닥에서 4미터 아래에는 돌로 된 인장이 서 있었다. 6만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문석은 파수꾼들과 하늘의 상당 부분을 삼켜버린 그날처럼 흠집 하나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수척해진 네 명의 사제들이 구덩이 가장자리에 앉아 다리를 접고 옷을 어깨에서 끌어올려 앙상한 가슴과 가느다란 팔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들의 쇠약해진 모습은 오랜 금식의 증거였다. 땀방울이 팽팽한 목과 앙상한 갈비뼈에 맺혀 반짝였고, 움푹 들어간 눈구멍 속에서 눈은 이글거렸다. 그들은 마치 조각상처럼 앉아 있었다.

깊은 명상에 잠긴 승려들 주위로 승려들이 줄지어 서서 어깨를 맞대고 앉아 승려들과 명상 구덩이를 촘촘히 감쌌다. 더 많은 승려들이 도착하자 두 번째 원을, 그리고 세 번째 원을 만들어 마침내 명상에 잠긴 승려들의 동심원이 방을 가득 채웠다. 깊은 침묵 속에서 간간히 타오르는 촛불의 희미한 불빛이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소리처럼 돔을 통해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곧 세 명의 승려가 더 들어왔다. 두 명은 커다란 양초를 들고 있었고, 나머지 한 명은 그들 사이를 걸었는데, 그는 갓 흘린 피처럼 붉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두루마리 양피지가 들려 있었다. 세 승려는 승려들이 둘러선 곳 너머에 멈춰 섰고, 붉은 옷을 입은 승려가 두루마리를 펼쳐 중국어로 쓰인 글귀들을 드러냈다. 그 양피지에는 문석에 새겨진 경전 구절들의 번역이 담겨 있었다.

사찰 밖, 경내에는 잔잔한 시냇물의 졸졸 흐르는 소리만이 들렸다. 개똥지빠귀 한 마리가 갑자기 날아올라 정원 꽃들 사이로 벌을 쫓았다. 그 지저귀는 새의 부리가 공중에서 벌을 낚아채는 순간, 굉음과 함께 순식간에 벌이 사라졌다.

사원의 돔이 산산조각 나면서 돌 파편들이 수백 피트 상공으로 솟구쳤다. 충격파는 너무나 강력해서 가장 가까운 나무들의 잎사귀를 모두 떨어뜨렸고, 화강암 조각과 사람 뼈 파편들이 그을린 나무줄기에 박혔다. 거대한 돌덩어들이 정원으로 쏟아져 내려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곳곳에 구덩이를 만들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흙더미. 솟아오르는 먼지와 화산재가 마치 거대한 화산쇄설류처럼 땅 위를 휩쓸고 산비탈 전체를 따라 흘러내렸다.

사원의 남은 부분은 맹렬한 열기에 휩싸여, 남아 있는 돌들을 갈라지게 만들었다.

온도는 계속 상승하여 사원 중심부의 매끄러운 구덩이 가장자리는 마치 스며드는 수액처럼 액화되었다. 사원을 둘러싼 그을린 나무들은 불길에 휩싸였다. 손상되지 않은 문석은 분화구 중앙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돌의 심장부 구멍은 역겨운 검은 안개로 뒤덮여 뿌옇게 변했고, 그 안개는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게이트스톤에서 유황 가스처럼 끈적하고 부식성이 강한 구름 같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분화구에서 솟아오른 구름은 지면을 따라 붙어 가벼운 화산재 아래로 흘러갔다.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끓어오르는 덩어리로 뭉쳐 남아 주변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정원의 푸르름이 그 뒤를 따랐다. 그러다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은 공터에 멈춰 서서 잠시 휘몰아치더니, 스스로 뭉쳐져 중심부를 이루었다. 짙은 적운 속에서 천둥번개를 연상시키는 빛줄기가 번쩍이며, 그 덩어리 깊숙한 곳에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이 점차 밀도와 구조를 갖추더니, 마침내 살색을 띠게 되었다. 구름이 얇아지자, 펼친 막 같은 날개를 가진 나체의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그녀의 머리카락은 흑단처럼 검고 비단실처럼 가늘었다. 눈과 손톱은 문석의 얼굴처럼 검고 반짝였는데, 이는 죽음처럼 창백하고 거의 투명한 피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의 천사 같은

그녀의 아름다움은 이브조차 따라올 수 없을 정도였다. 그녀는 불경스러운 루시파엘, 용, 매혹적인 릴리스, 찬란한 새벽별, 고대의 헤이텔, 그리고 지옥의 어머니 서큐버스— 수많은 이름으로 불리며 오랜 세월을 거쳐 전해져 왔다. 형체를 드러낸 루시파엘의 영혼은 여러 여인의 목소리를 섞어 "하나! 둘만 남았군." 하고 한숨을 쉬며 파괴된 광경을 응시했다.

그녀 주위로 흩어지는 안개가 악몽 같은 풍경을 드러냈다. 사원 경내는 연기가 자욱하고 시체가 널린 폐허였다. 철학 같은 어둠이 사원의 불타는 잔해를 둘러싸고 있었고, 바깥 정원은 메말라 죽어가는 듯 그을리고 있었다. 시냇물에서는 김이 피어올랐는데, 시냇물 자체도 그을음과 탄화물로 검게 변해 있었다. 분재들은 타닥거리는 소리를 내며 타들어 갔고, 때때로 하나씩 쓰러져 재와 잿더미로 변했다.

서 있었다.

루시파엘은 앞으로 나아가 땅에서 죽은 비둘기를 집어 들었다. 그녀는 새를 어루만지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아직은 안 돼, 애야." 그녀는 속삭였다. "이리 와." 새는 깜짝 놀라 살아났고, 목이 부러진 듯 머리를 흔들었다. 그녀는 새를 쓰다듬었다. "그래. 돌아와, 작은 새야." 하나." 그것의 눈이 천천히 떠지더니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그것이 파르르 떨리자 그녀는 그것의 목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새를 얼굴 가까이 가져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는 몸부림치는 새 위로 짙은 유향 연기를 내뿜었다. 새의 깃털은 노랗게 빛났다.

약취 나는 연기 속에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명체를 파멸로 이끌 씨앗이 숨겨져 있었다. 아시아를 썩게 만들고, 결국 유럽 대부분을 뒤덮을 만큼 끔찍한 치명적 세균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 세균은 바로 흑사병의 원인균인 예르세니아 페스티스였다. 루시파엘은 씩 웃으며 새에게 말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작은 새야. 사람들에게 내 말을 전해라. 내가 곧 내 것을 되찾으러 오겠다고." 그녀는 비둘기를 공중으로 던졌다. 비둘기는 원을 그리며 남쪽으로 날아갔고, 바로 그때 루시파엘은 잿더미로 변해 까마귀의 형상으로 변했다. 연기로 뒤덮인 까마귀는 땅을 가로 질러 문석의 구멍으로 곤두박질쳤다.

비둘기는 서둘고 불규칙하게 산비탈을 따라 공중을 빙빙 돌며 평원으로 날아갔다. 그림자는 작은 마을의 초가지붕을 스치고, 들판을 가로지르고, 숲 속을 헤쳐 나갔다. 마침내 비둘기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마을 한복판에서, 그것은 갑자기 멈춰 서서 땅으로 곤두박질치더니, 건물 외벽에 부딪혀 부서지고 말았다. 그리고는 북적이는 마을 시장의 생선 가판대 뒤편 땅바닥에 멈춰 섰다. 저녁이 되어 시장이 텅 비었을 때, 아무도 죽은 새를 발견했고, 어둠이 짙어지면서 시체에서 새어 나오기 시작한 희미하고 병든 빛을 본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다.

비둘기는 몸이 굳어지고 차가워졌지만, 깃털은 여전히 불길한 노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날이 밝아 오자 검은 쥐 두 마리가 그 시체를 발견했다. 한 마리가 냄새를 맡았다.

한 마리는 찻 벌어진 눈을 쳐다봤고, 다른 한 마리는 엉덩이 냄새를 맡았다. 둘 다 시체가 신선하다고 생각했는지 뜯어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끔찍한 만찬을 끝내기도 전에 한 남자가 생선 가판대로 다가와 초록색 등에 붙은 파리들을 쫓아내고는 뿌연게 변한 무거운 생선을 가판대의 거친 판자 위에 툭 던졌다. 쥐들은 새의 살 속에 있는 병균을 가득 물고 쏘살같이 도망쳤다.

쥐들은 능숙한 청소부였지만, 더욱 효율적인 존재는 쥐의 몸에 몰래 기생하는 기생충들이었다. 사원 비둘기를 통해 시장으로 옮겨진 세균은 쥐의 몸속에서 증식하여, 쥐를 기생하는 벼룩에게는 살아있는 죽음의 스튜이자 마녀의 물약으로 만들었다. 벼룩들은 세균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감염된 쥐의 피를 게걸스럽게 빨아먹었고, 그 피를 통해 곧바로 기생충을 만들어냈다.

비둘기는 다음 식사를 준비하는 숙주들의 몸속으로 토해내졌다. 비둘기가 만나처럼 쥐들의 굴에 떨어진 후 2주 동안, 벼룩은 마을의 모든 쥐에게 그 병균을 퍼뜨렸다.

쥐들이 죽어가기 시작하자 벼룩들은 더 건강한 먹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질병 역시 쥐 개체수를 급감시키면서 새로운 번식지를 찾아 나섰고, 수십억 마리의 벼룩의 위장을 통해 새로운 숙주, 즉 인간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이 맑고 화창한 아침, 어린 중국 소녀는 저주받은 비둘기가 착륙한 곳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채소가 판대 위에 쌓인 검은 생강 묶음을 살펴보고 있었다.

소녀는 작은 묶음을 가리키며 노점 주인 할머니에게 얼마에 사겠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이빨 빠진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 일곱 개를 흔들었다. 소녀는 활짝 웃으며 받아들였다. "괜찮은 가격이었어." 할머니는 소녀의 동전을 받아 묶음으로 된 뿌리를 내밀었는데, 바로 그때 어린 손님이 비명을 지르며 노점에서 뛰쳐나갔다. "쥐야!" 소녀는 불쾌함에 얼굴을 찡그리며 소리쳤다. "쥐가 뛰어다녔어!"

내 발."

여자는 손을 느긋하게 흔들며 웃었다. "해롭지 않은 해충일 뿐이에요." 그녀는 씩 웃으며 말했다. "먹이가 이렇게 널려 있으니 아주 대담해졌네요. 거의 애완동물처럼요."

소녀는 물건을 받으려고 손을 뻗으며, 이제 그 늙은 마녀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애완동물들'. 발목에 따끔거리는 느낌이 든 그녀는 노점상에서 다시 몸을 움츠리고 긴 치마 자락을 들어 올려 맨발을 드러냈다. 그녀는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몸을 숙이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러자 그녀가 쓰고 있던 넓은 밀짚모자가 땅에 떨어졌고, 지나가던 상인이 그것을 밟아버렸다. 노파는 아주 평범한 불행에서도 재미를 찾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소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노파의 웃음 소리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너처럼 불행하다면, 우리는 모두 새벽이 오기 전에 죽어 있을 거야." 그녀는 낄낄거리며 웃었다. 소녀는 이 암울한 철학에서 웃음을 찾지 못하고 모자를 주워 다시 머리에 썼다. 노파는 조롱하듯 웃음을 터뜨리며 생각 한 움큼과 더러운 모자, 그리고 벼룩에 물린 자국을 한 채 쿵쿵거리며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그 작은 한 입이 결국 당시 알려진 세계의 거의 절반을 삼켜버릴 만큼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발생한 전염병은 쓰나미처럼 중국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땅과 그 위를 기어 다니는 동물과 곤충에 가장 가까이 있던 아이들이 가장 먼저 병에 걸리고 죽었습니다.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뼈에 붙어 있었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높은 감염률은 거의 75%까지 치솟았다. 온화한 겨울은 질병 확산에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했고, 다가오는 따뜻한 날씨는 인간에게는 더욱 치명적이고 박테리아에게는 더욱 풍요로운 환경을 조성할 것이었다. 지옥은 기쁨을 허락하지 않지만, 비극적인 인간 감염의 순간, 루시파엘은 쾌락에 젖어들었다. 인간은 감염되기 딱 좋은 상태였다.

따뜻한 날씨는 죽음에게 풍성한 수확을 안겨주기에 이상적이었고, 죽음은 마치 노련한 일꾼처럼 날카롭고 빛나는 낫을 휘두르며 풍요를 거두기 위해 항상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흑사병에 감염된 사람들은 면역 체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세균 때문에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이 세균은 림프절을 공격하여 파열시키고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의 몸은 완전히 압도당하기 전에 자신을 방어할 시간조차 거의 없었다. 출혈성 혈액이 피해자의 피부 아래에 검은 얼룩처럼 고였고, 감염된 체액 (혈액, 땀, 노폐물)에서는 끔찍한 악취가 풍겼다.

흑사병은 지옥의 가장 교활한 계략 중 하나였다. 루시파엘의 숨결은 간사했고, 그녀의 욕망은 적들을 완전히 말살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흑사병은 화학적 변신술사였다. 한 형태로 이루지 못한 것을 다른 형태로 이루어냈다. 질병은 변이했고, 두 번째 감염 물결이 인간의 삶을 어둠 속에서 휩쓸고 지나갔고, 그 후 세 번째 물결이 이어졌다. 폐렴형 흑사병은 희생자의 폐를 감염시켜 그곳에서 매우 빠르게 증식하여, 불행한 희생자의 흉강이 감염 후 며칠 만에 부어오르고 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 흑사병에서 살아남는 이들도 있었지만, 폐렴형 흑사병은 누구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더욱이, 이 감염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쉽게 전염되어 죽음이 공기 중에 가득 찼다.

세 번째 감염 형태는 모든 감염 중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패혈증성 흑사병은 혈액을 공격하여 신체 조직의 모든 입자를 맹렬하게 증식하는 세균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희생자들은 몇 시간 안에 사망했으며, 그들의 내부 장기는 문자 그대로 액화되어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혈액 웅덩이 속에 잠겼습니다. 폐를 통해 전염되는 흑사병과 마찬가지로 패혈증성 감염은 거의 100% 치사율을 보였습니다.

전염병은 발생지에서 빠르게 확산되어 시골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전염병에 노출된 주변 마을과 도시의 4분의 3이 며칠 만에 초토화되었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수십만 명의 감염자 시체가 들판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감염될까 두려워 시체를 묻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파리 개체 수는 급증했고, 썩어가는 시체는 파리 유충의 훌륭한 온상이 되었습니다. 비교적 개발된 지역에서는 검게 그을리고 부풀어 오른 시체의 악취가 너무 심해서 죽은 마을의 냄새는 바람을 타고 16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맡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외딴 무인도 지역으로 피난처를 찾아 대규모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와중에도 여행자들은 썩어가는 사람들의 시체, 때로는 마을 전체의 시체가 널려 있는 기존 도로를 피했다. 시골길은 죽은 말이 끄는 수레가 파리떼로 가득 차 길을 막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죽음과 부패가 도처에 만연해 있었다.

역병이 창궐했고, 사람들은 그 노예가 되었다. 대역병은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3천 5백만 명이 넘는 중국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그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역병은 소리 없이 메소포타미아와 소아시아로 진격하여 중국을 휩쓸었던 것처럼 그곳들도 황폐화시켰고, 마치 복수심에 불타는 약탈자 무리처럼 대륙 전체를 휩쓸고 지나갔다.

그 질병은 몽골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교역로를 따라 아시아 문명의 모든 맥을 타고 퍼져 나갔다. 동방의 상품을 지중해로 실어 나르던 고대 대상로인 실크로드는 이제 죽음의 하녀를 유럽으로 실어 나르고 있었다. 죽음은 마치 악취 나는 바람처럼 온 땅을 뒤덮으며 부패의 악취로 공기를 오염시켰다. 그 불길한 악취는 하늘조차 마비시킬 만큼 지독했다. 그리하여 역사 속 끔찍한 사건들이 늘 그렇듯, 루시파엘의 메시지가 온 땅에 울려 퍼졌다. 그녀가 곧 자신의 땅을 되찾을 것이라는 메시지였다.

[1장 끝]



이 문학 작품은 창작 되었습니다. d는 오직 ~ 에 헌정하기 위해

에드거 앨런 포 (1809-1849)

— 그의 업적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기를 —



~[고딕노블.org](https://www.gothicnovel.org)~